

【우리 소설, 우리말】

박완서가 만들어 낸 우리말의 아름다움

민충환

부천대학 교수

I. 들어가면서

소설은 문학과,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따라서 소설 역시 언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동시대의 작가들이 소설 속에 쓰는 언어는 거개가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소설을 읽는 재미이기도 하다.

분명 한 작가가 즐겨 쓰는 언어들은 독자들에게 그 작가의 작품을 읽는 기쁨을 준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동시대·동세대적 언어가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세월을 꿰뚫고 살아남아 있는 언어를 통해 그 작가의 생명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작가 박완서의 작품 속 언어들의 참맛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그의 작품에서 추려낸, 그만의 어휘를 통해 박완서 소설 읽기의 독특한 재미를 찾아본다.

II. ‘박완서’라는 소설가, 그리고 그의 어휘들

박완서는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裸木)>이 당선되어 문단에 발을 들여놓은 후 30여 년의 창작 기간 동안 14 편의 장편소설과 단행본 10 권 분량의 단편소설을 발표한 다작의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6·25 전쟁과 분단이 남긴 정신적·물질적 상처를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영역을 확대·변모시켜 왔다. 등단 초기의 작품들은 6·25전쟁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삭막해져 가는가를 그리고 있으며, 이후에는 그러한 전쟁세대·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작품으로 발전하였다.

박완서는 1931년 10월 20일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태어났다. 4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오빠와 함께 서울로 갔다. 조부모, 숙부모 밑에서 자라던 박완서도 8세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왔다. 서울 매동초등학교를 거쳐 14세가 되던 해에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1945년 다시 개성으로 이사하여 호수돈여고에 전학하였고, 여름방학 때 박적골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박완서는 개성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성장·생활을 한 작가이다. 따라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방의 독특한 어휘가 그의 소설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 즉, 작가의 성장기 지역어가 그 작가의 작품에 짙게 배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런데 박완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가 개성에서 상당 시간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의 소설에 표현된 어휘들은 그 지역의 독특한 언어가 아니라 거의 표준어에 가까운 현재의 언어이다.²⁾

대신 박완서 소설의 재미는 ‘다섯 아이를 두고 살림에 전념한 전업주부

1)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문구의 소설에는 충남 보령·대천 지역어가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송기숙의 경우 호남의 지역어가 살아 숨쉬고 있다.

2) 이는 박완서가 앞의 이문구나 송기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작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로 살아왔던’ 그가 ‘중산층 주부들의 심리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에 있다. 어느 작가의 작품치고 작가의 체험적 사실이 배어 있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박완서의 경우, ‘작가가 개인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듯 하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작가가 내세우려는 일관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일관된 주제의식은 인물의 성격화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³⁾고 할 수 있다.

이런 인물들의 성격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이 그 인물들의 언어이며, 그 언어의 특징은 지역어나 계층어가 아니라 바로 작가 박완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어휘들이다. 이러한 개인적 어휘들은 박완서라는 작가 개인의 것이기에 당연히 국어사전의 표제어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작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⁴⁾

Ⅲ. 소설가 박완서가 만들어낸 우리말

여기에 소개하는 어휘들은 모두 박완서의 소설 작품에서 추려낸 것들이다. 먼저 표제어를 소개하고 이어 그 뜻을 풀이했으며, 용례를 한 개씩만 들고 작품명을 밝혔다.⁵⁾

가변두리 : 변두리. 외곽. ‘가’와 ‘변두리’의 합성어.

* “...아빠,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저, 가변두리 싸구려 가구점 이층 같은 데 있는 거지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고 나오는 신랑신부만 봐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휘청거리는 오후」

3)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 1쪽.

4) Ⅲ장에서 소개하는 어휘들은 작가 박완서가 직접 그 의미를 밝힌 것들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박완서의 소설 속 어휘들을 조사하였고, 이 중 국어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어휘들을 수 차례에 걸쳐 작가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풀이를 받았다. 지면을 빌려서나마 작가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5) 글의 분량 관계상 대표적인 것들만 간추렸음을 밝혀둔다. (「」은 장편소설, < >은 단편소설임.)

각죽거리다 : 남의 비위를 건드려 불편하게 만들다.

- 그녀는 종상이가 동해랑집을 처가로서가 아니라 이성을 마땅찮아하는 감정으로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각죽거렸다. 「미망」㉞

곤달걀 다루듯이 : 대단치도 않은 것을 조심조심 다룰 때 쓰는 말.

- 손태복 씨가 오만상을 쩡그리며 마나님을 향해 팔을 뻗었다. 마나님이 영감님을 겨드랑 밑으로 안아 곤달걀 다루듯이 조심조심 자리에 눕혔다. 「미망」㉞

구더기 밀살 같다 : 아주 누추하고 상스럽고 구질구질한 모습을 이르는 말.

- 누가 못할 줄 알구. 이 구질구질한 구더기 밀살 같은 성공에 흠칫, 아니 똥칠인들 못할 줄 알구. 「회청거리는 오후」

굴신스럽다 : 공상맛고 가난스럽다.

- …아이들도 아니고 나이도 알 수 없이 굴신스럽게 찌든 여편네들한테 할머니 소리를 듣다니. <저녁의 해후>

극뜬다 : 서로 긁고 뜯다.

- “…어르신네 돌아가신 후에도 모자가 극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얻어 가진 게 없었드랬으니까요…” 「미망」㉞

글경글경 : 무언가 자꾸 먹고 싶어하는 모양.

- …그 무렵에 동생들이 먹고 또 먹어대는 꼴이라니 영락없이 밀 빠진 가마솥이었다. 먹고 또 먹고도 뻘뻘 말라서 글경글경 온종일 먹을 것에 환장을 해쌌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너누룩하다 : 심한 고통이 가라앉으면서 견딜만해진 상태.

- 얼이 빠져 등신이 다 된 한씨덕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기진해서 일단 너누룩했던 수지가 다시 까무러칠 듯이 울고 몸부림쳤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바닥가난 : 밑바닥 가난.

- 그가 동계 진료반에 참여한 일이야말로 우스꽝스러운 폼이었다. 더 웃기는 폼은 가출과 바닥가난이었다. 그는 다시는 폼잡지 않을 터였다. 다시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바닥가난으로 돌아가지 않을 터였다. 그 바닥가난으로부터 묻혀갈 것도 집어갈 것도 없다는 걸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흥가분해지려고 했다. 「오만과 몽상」

별산 : 흩어져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모습.

- 수지는 밖에서 별산을 하는 아이들이라도 우선 그녀의 집에 가 있게 하려고 했지만 일남이가 막무가내로 싫다고 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큰 떡 미루듯 : 달갑지 않아 멀찌감치 밀어놓는 것.

- 결혼만 하면 큰 수라도 날 듯이 서로 앞을 다투던 자매가 갑자기 결혼을 섰던 미루듯 하는 데는 제각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다. 「휘청거리는 오후」

알알하다 : 여유가 조금도 없다.

- 망건을 꾸밀 수 있도록 조각조각 마름질해 파는 검은 공단은 울을 다투게 알알해서 까딱 잘못하면 못쓰게 되는 수가 있었다. 「미망」㉔

주런히 : 줄을 지어 나란히.

- (산) 구두를 닦거나 간단한 물건을 팔려는 장사꾼도 있었지만 거리가 그냥 서성이거나 그늘이나 담벼락에 주런히 기대앉아 있거나 낮잠을 자고 있었다. <녹색의 경이>

푸듯이 : 조용하게 있다가 불쑥 말하지만 혼잣말처럼 힘없이 말하는 모양.

- “그때는 좋았었지…” 나는 늙은이처럼 푸듯이 뇌까리고 벽에 걸린 기타의 젤 굵은 줄을 엄지와 검지로 잡았다 놓으니 음산한 저음이 둔중하게 울렸다. 「나무」

흐드르하다 : 얇은 피륙이 늘어진 모양.

- 투박한 검정 외투 밑으로 다홍 뉴통치마가 흐드르하게 늘어진 게 더 할 나위 없이 촌스러우면서도, 친근감이 가는 소박함이 있었다. 「나목」

IV. 나오면서—작가가 창조해 낸 우리말의 아름다움

박완서는 근현대사의 경험들을 파노라마처럼 폭넓게 펼쳐 보이는 작가이다. 그래서 풍속작가, 세태작가라는 명칭이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기도 한다. 방대한 양의 작품들은 동시대의 일상사 구석구석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물들의 삶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삶의 양상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작가의 시선은 세태나 풍속묘사에 멈추지 않는다. 결국에는 다양한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인물들의 진지한 내면 탐색으로 귀결되어 당대인들의 내면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⁶⁾

이러한 인물들의 내면은 물론 외양을 형상화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박완서가 개인적으로 창조한 어휘들이다. ‘가변두리’라는 단어를 보자.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대략 ‘가’와 ‘변두리’의 합성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작가 박완서의 도움을 직접 받아 알아낸 의미는 ‘변두리’, ‘외곽’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변두리’에 ‘가’를 붙였을까. 이것은 작품을 읽으며 알게 된다. “...아빠,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저, 가변두리 싸구려 가구점 이층 같은 데 있는 거지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고 나오는 신랑신부만 봐도 눈물이 난다니까요...”라는 문장 속의 ‘가변두리’는 그저 막연한 ‘변두리’가 아니다. 그만큼 인물의 비참한 심리를 더욱 비참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처럼 박완서는 그의 출신지·성장기·거주지의 언어가 아닌 현재의

6) 이선미, 앞의 논문 참조.

표준어를 구사하면서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과정 속에 작가 자신이 만들어낸 개인적 어휘를 활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어휘들이 독자들에게 엉뚱하다거나, 외국어처럼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생경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는 어휘들이다. 그렇기에 박완서의 작가적 역량은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어휘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말을 더욱 살지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억측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로 작가 박완서의 소설 속 어휘들이 이를 증명한다.